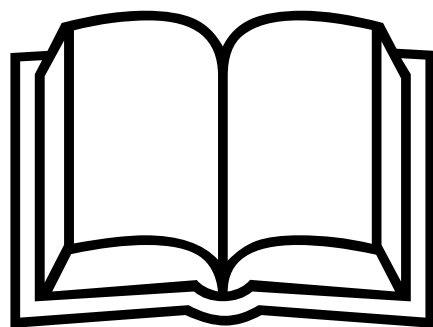


- 제1차 -

총만국

실전 모의고사

80분



[1~3] 다음은 라디오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혹시 이 세상에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기분을 느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엔 외롭고 쓸쓸했지만 친구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친구 같은 방송,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상담해 주는 ‘고민 타파’ 시간입니다. 저는 이 방송의 진행자인 심리 상담가 ○○○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생 □□라고 해요. 제 친구는 중간고사를 망친 이후에 학교 생활에 의욕을 많이 잃었어요. 매사에 열정적인 친구였는데 이제는 빈번히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해서 매우 걱정입니다. 이런 친구를 제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님은 시험 때문에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네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저도 □□님처럼 안타깝네요.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는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 원인인 경우와 자책하는 태도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 속 친구는 시험을 망친 나머지 자신을 자책해서 자존감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장점 말해 주기’와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친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자주 말해 주세요. 그러면 친구가 자신의 장점을 깨닫고 학교 생활의 의욕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만약 친구가 실수해서 자책하고 있으면 “많이 속상하겠구나.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며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식으로요. 그러면 친구가 스스로 괜찮다고 느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책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청취 소감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그럼 △△의 노래 ‘우리 함께’를 들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1. 위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시험을 망친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 ② 사연 내용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청취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과거 사연을 소개하고 직업을 알려 방송 진행의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사연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연 신청자에게 방송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사연에 대한 상담 중에 질문을 던지고 사연 속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자가 세운 계획이다.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오프닝] 방송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사연으로 시작
[사연 소개 및 고민 진단]
 ○ 사연 신청자가 보낸 사연 소개 ㉠
 ○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존감이라는 용어의 의미 제시.....㉡
 ○ 자존감이 낮은 원인 두 가지를 사연의 문제 상황에 적용 ㉢
[방법 제시]
 ○ ‘장점 말해 주기’ 방법을 안내하고 효과 제시 ㉣
 ○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 효과 제시 ㉤
[클로징] 청취자 게시판에 관한 안내 및 인사말로 마무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은 위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이 게시판에 올린 댓글이다. 방송 내용을 고려하여 청취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민 타파' 게시판]
 ○월 ○일 방송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주세요.

↳청취자 1: 저도 자존감이 낮은 거 같아서 좋은 방법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안 나오네요.

↳청취자 2: 자존감을 높여 주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남과 비교하지 않기’, ‘자책하지 않기’ 등을 실천해야겠어요.

↳청취자 3: 내 친구도 요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긍정적인 면들을 말해줘야겠어요.

↳청취자 4: 사연 속 학생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시험을 망쳤는데 제 자식에게는 평소 컨디션 관리에 신경쓰라고 말해줘야겠어요.

↳청취자 5: 저도 자존감이 낮은 편인데 스트레스 때문이었네요. 앞으로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어줘야겠어요.

- ① ‘청취자 1’은 자신이 방송을 들은 목적과 관련해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군.
- ② ‘청취자 2’는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자신이 직접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군.
- ③ ‘청취자 3’은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군.
- ④ ‘청취자 4’는 방송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다짐하고 있군.
- ⑤ ‘청취자 5’는 방송 내용대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짐하고 있군.

[4~7]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기사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표제] '빗물 재활용'이 시급하다

[전문]

최근 물 소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점을 시스템의 구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본문]

기후 변화로 지구 곳곳의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흘러 버리던 빗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레인 시티(Rain City)를 선언하였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도시들도 전국적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 기근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강수량은 풍부하지만 물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에 대체 수자원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빗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빗물 재활용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많은 비가 오는데, 이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 중 23%만 지하수, 댐 용수, 하천 수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바다로 흘러 보낸다."며 "바다로 흘러보내는 빗물 중 5~10%만 활용해도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은다.

(나)

학생 1 : 물 부족의 대안을 다룬 기사문을 검토할게.

학생 2 : 이 기사문은 네가 작성한 거지?

학생 3 : 응, 초고라서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아.

학생 1 : 우선 표제와 전문에 대해 논의하자. 표제를 수정하고, 전문은 대안의 구체성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애.

학생 3 : ㉠ 네 말을 들으니 전문은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할지 알겠는데, 표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말해 줄래?

학생 1 : 표제는 문제 사항과 이를 해결할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표제에는 대안만 있잖아.

학생 3 : 그러게, 표제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학생 1 : 그리고 전문에 비유적 표현을 추가해서 써 보는건 어때?

[A]

학생 2 : 그러면 분량이 늘어나 기사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잖아.

학생 1 : ㉡ 비유적 표현 하나 없으면 내용이 딱딱해질 것 같은데...

학생 3 : 두 의견을 들어 보니, 표제에는 문제 사항을 추가해야겠고 전문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과 간결성을 위해 비유적 표현은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대신 분량은 조금 늘더라도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는 구체적으로 수정해야겠어.

학생 1, 2 : 응, 그래.

학생 1 : 다음으로 본문에 대해 논의하자.

학생 3 : ㉢ 너희들 모두 레인 시티(Rain City)에 대해 잘 알고 있지?

학생 2 : 난 생소한데.

[B]

학생 3 : 레인 시티(Rain City)에 대해 처음 들어봐?

학생 1 : 레인 시티(Rain City)? 나도 처음이야.

학생 3 : 아, 너희들 모두 몰랐구나!

학생 2 : 레인 시티(Rain City)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할 것 같아.

학생 1 : 맞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학생 3 : 아, 내가 안다고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수정해 올게.

학생 1 : ㉣ 그리고 내용의 신뢰성을 위해 출처가 필요한 내용에는 출처를 밝히면 어떨까?

학생 3 : 출처를 넣으면 신뢰성이 높아지려나?

학생 1 : 물론이지, 그럼 독자들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 믿음이 높아질거야.

학생 2 : 또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구체적인 수치도 넣어야할 것 같애.

학생 3 : 고마워. 지금까지 나온 의견 모두 반영해서 써 볼게.

학생 1 : 그런데 글의 분량도 생각해 할 것 같아.

학생 2 : ㉤ 기사문이 실릴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학생 1 : 지금 다시 읽어 보니 본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삭제하면 글의 분량이 줄어들 것 같아.

학생 2: 그리고 기사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물 부족이라는 문제점과 구체적 대안의 활용을 촉구하는 것으로 기사의 결론을 작성해야 할 것 같아.

학생 3 : 그렇게. 처음 써 본 기사문이라 부족한 게 많아.

학생 1, 2 : 괜찮아. 기사 쓰느라 고생했어.

4. '학생 3'이 (나)를 참고하여 (가)를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표제 수정하기
 - '물 부족의 대안, 빗물 재활용'으로 수정해야겠군. ㉠
- 전문 수정하기
 - '최근 물 소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점을 빗물 재활용 시스템의 구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로 고쳐야겠군. ㉡
- 본문 수정하기
 - 첫째 문단 둘째 문장을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에 떨어지는 빗물을 관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물 자급률을 높이려는 레인 시티(Rain City)를 선언하였고, '로 수정해야겠군. ㉢
 - 둘째 문단 첫 문장을 '국제 인구 행동 연구소(PAI)는 우리나라를 '물 기근 국가'로 분류하였다.'로 고치고 세번째 문장에서 '많은 비가'를 '1,323억 톤의 비가'로 고쳐야겠군. ㉣
 - 둘째 문단에서 '이에 대체 수자원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빗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를 삭제해야겠군. ㉤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작성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는 ‘빗물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져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자원으로서의 빗물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 빗물 이용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물 소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수자원량의 지속적으로 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③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는 ‘빗물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져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물 소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다.
- ④ 우리나라는 빗물의 중요한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자원으로서의 빗물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물 소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자원으로서의 빗물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대의 제안 중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대에게 요청하는 발화이다.
- ② ㉡ : 분량을 우려하는 상대의 의견에 대해 비유적 표현이 분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발화이다.
- ③ ㉢ : 기사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점검하는 발화이다.
- ④ ㉣ : 출처 표기와 신뢰성의 관계를 고려해 출처 표기를 제안하는 발화이다.
- ⑤ ㉤ : 글의 분량을 언급한 상대의 의견에 대해 지면의 크기를 이유로 들어 같은 의견을 드러내는 발화이다.

7.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학생 3’의 기사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길 원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으며,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④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일부 의견을 수용하고 있고, [B]에서 ‘학생 3’은 ‘학생 1,2’의 반응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점검하고 있다.

[8~10] 글을 쓰기 위해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의 메모

- 글의 목적 :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의 도입을 제안함.
- 예상 독자 : 우리 학교 학생
- 예상 독자 분석
 - 올해 실시한 체육대회를 기억하고 있겠지. ㉠
 - 현행 체육대회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을거야 ㉡
 - 스포츠클럽 대회를 다들 반가워하겠지. ㉢
 - 스포츠클럽 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질거야. ㉣
 - 육체과 정신 건강의 조화를 강조하며 마무리해야지. ㉤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A. 현행 체육대회에 대한 만족 여부 (단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8	17	53	21

B. 현행 체육대회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일회성 행사에 그침.	34
종목의 다양성이 부족함.	32
경기 참여 기회가 제한됨.	27
기타	7

C. 교육 전문 잡지

그간 청소년기의 체육 활동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었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매주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체육 활동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 체육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특히 매월 학교 내의 다양한 스포츠클럽이 주축이 되어 해당 종목의 체육대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체육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다) 학생의 글

우리 학교는 올해도 예년처럼 지난 1학기 중간고사 직후에 축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매년 한 차례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평소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학생들은 현행 체육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경기 참여 기회 역시 제한된다는 한계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현행 체육대회는 유지하되,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대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학교의 다양한 스포츠클럽의 종목들 중에서 매월 학생들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해 점심시간 내지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경기 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그만큼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할 것이다. 즉, 보다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더욱 많은 학생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며, 직접 출전하지 않는 종목일지라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늘어나기에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전 시기 중에서 청소년기는 육체와 정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올해 실시한 체육대회를 언급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 ② ㉡을 고려해, 현행 체육대회의 한계를 지적한다.
- ③ ㉡을 고려해, 스포츠클럽 대회를 제안하며 그 방식을 언급한다.
- ④ ㉡을 고려해, 스포츠클럽 대회 도입 시의 기대 효과를 강조한다.
- ⑤ ㉡을 고려해, 학업만큼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글을 마무리한다.

9. (나)는 (다)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이다. 학생의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를 활용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근거로 제시하여 현행 체육대회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 ② B를 활용해, 현행 체육대회의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이유로 종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③ C를 활용해, 체육 활동이 학생들의 학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A, C를 활용해, 스포츠클럽 대회 도입이 학생들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B, C를 활용해, 스포츠클럽 대회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상시적이고 다양한 체육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D]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스포츠클럽 대회를 도입함에 따라 대회 운영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나 학생들의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① 경기에 대한 집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클럽 대회의 경기를 단일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②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나오는 거친 플레이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참여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 ③ 스포츠클럽 대회의 참여 대상을 교직원이나 학부모로 확대한다면 스포츠클럽 대회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 ④ 건전한 스포츠 활동이 학업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 ⑤ 운동보다는 명문대 입학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이나 예산의 부족을 호소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스포츠클럽 대회의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사랑, 불, 운, 안, 사람, 담, 깔, 이랑, 땀, 슬

[B] 국어의 자음 체계

발음방법	발음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입술소리	잇몸소리	생입천장소리	어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안울림소리	예사소리			ㅈ		
	파찰음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콧소리)	ㅁ	ㄴ		ㅇ	
	유음(호흡소리)		ㄹ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 을 확인할 수 있군.

- ① 2개의 파열음 ② 2개의 울림소리
- ③ 2개의 양순음 ④ 3개의 치조음
- ⑤ 1개의 연구개음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 ‘법씨’, ㉡ ‘살코기’와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 ‘보리씨’, ㉣ ‘돼지고기’와 같은 합성어들에게서 볼 수 없는 ‘ㅂ’과 ‘ㅎ’이 덧나는 현상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법씨’에서는 ‘보리씨’에서와는 달리 ‘벼’와 ‘씨’가 합성될 때, ‘ㅂ’이 덧나 ‘법씨’가 되었고 ‘살코기’에서는 ‘돼지고기’에서와는 달리 ‘살’과 ‘고기’가 합성될 때, ‘ㅎ’이 덧나 ‘ㄱ’과 축약이 이루어져 ‘살코기’가 되었다,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현대 국어에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ㅂ’이나 ‘ㅎ’이 덧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 즉 어두 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 그러한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당시에는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ㅂ’은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복합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현대 국어의 ‘벼+씨→법씨’에서 ‘ㅂ’이 생겨나는 이유는 ‘ㅂ>씨’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5세기에는 ‘ㅂ’의 어두에 ‘ㅂ’이 있었는데, 당시 ‘벼+ㅂ→벼ㅂ’이 만들어진 후 나중에 ‘ㅂ’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 형태소의 받침 자리로 가서 붙어 ‘법씨’와 같은 어형이 생성되었다. ‘ㅂ>씨’에서 보듯이 훗날 단일어에서는 ‘ㅂ’이 탈락하였다. 그러나 복합어 속에서는 ‘ㅂ’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현대 국어에서 확인된다.

15세기 국어에는 체언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 존재했는데, 이를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한다. 이 ‘ㅎ’ 역시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단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ㅎ’ 종성 체언이었던 ‘술ㅎ’을 살펴보자.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술ㅎ+이→술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났다. 현대 국어의 ‘살+고기→살고기’에서 ‘ㄱ’이 ‘ㅋ’으로 바뀌는 이유 역시 ‘술ㅎ>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ㅎ’ 종성 체언은 ‘ㄱ, ㄷ, ㅂ’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ㅎ’ 종성이 뒤에 오는 ‘ㄱ, ㄷ, ㅂ’과 결합하여 ‘ㅋ, ㅌ, ㅍ’으로 축약되어 나타났다. 즉 ‘술ㅎ’이 ‘고기’와 결합한 말이 만들어질 때 ‘ㅎ’이 ‘ㄱ’과 결합하여 축약되었으므로 ‘살코기’와 같은 어형이 생성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단일어의 ‘ㅎ’ 종성은 대체로 소멸하였으나 ‘살코기’ 외에도 복합어 속에서 ‘ㅎ’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있다.

12. 윗글을 참고할 때, ㉠~㉣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기>에서 알맞게 골라 넣은 것은?

< 보 기 >	
햅쌀(해+쌀)	들뜨다(들다+뜨다)
휩쓸다(휩+쓸다)	안팎(안+밖)

	㉠ 햅쌀	㉡ 살코기	㉢ 보리씨 ㉣ 돼지고기
①	햅쌀	안팎	들뜨다, 휩쓸다
②	햅쌀, 휩쓸다	안팎	들뜨다
③	휩쓸다	들뜨다	햅쌀, 안팎
④	햅쌀, 휩쓸다	들뜨다	안팎
⑤	휩쓸다, 안팎	햅쌀	들뜨다

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탐구 주제]
 ◦ ‘암소’는 ‘암퇘’과 달리 왜 ‘ㅎ’이 덧나지 않을까?

[자료]
 암ㅎ+소=암소 ⇔ 수ㅎ+소=수소 (*숫소)
 암ㅎ+닭=암퇘 ⇔ 수ㅎ+닭=수퇘
 수ㅎ+꿩=수꿩, 수ㅎ+병아리=수평아리 (*수병아리)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는 서로 반대의 의미를 나타냄.

- ① 탐구 주제에서 ‘암소’에는 ‘ㅎ’이 덧나지 않는 의문을 제기하는군.
- ② ‘암ㅎ’과 ‘수ㅎ’은 ‘ㅎ’ 종성 체언에 해당하는군.
- ③ ‘수퇘’과는 달리 ‘수소’에는 자음이 축약될 환경이 되지 않는군.
- ④ ‘수소’의 ‘수ㅎ’과 ‘수퇘’의 ‘수ㅎ’는 서로 다른 의미의 어휘임을 알 수 있군.
- ⑤ ‘수병아리’가 아닌, ‘수평아리’인 이유는 덧생긴 ‘ㅎ’이 ‘ㅂ’과 축약을 이루었기 때문이군.

14.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개는 늑대와 많이 비슷하다.
 ㉡ 코끼리는 코가 길다.
 ㉢ 철수는 따뜻한 밥을 먹고 있다.

- ① ㉠의 ‘비슷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 ② ㉡는 ‘코끼리의 코는 길다’와 같은 의미이군.
- ③ ㉢에서 안긴 문장의 목적어와 안은 문장의 목적어는 같다고 볼 수 없군.
- ④ ㉠의 ‘많이’와 ㉢의 ‘따뜻한’은 문장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⑤ ㉡의 ‘코’와 ㉢의 ‘밥’은 안긴문장의 주어이군.

15. <보기>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표제어 ㉠, ㉡와 예문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돌에 셋을 더한 숫자가 얼마냐?
 ㉡ 실버들이 푸른빛을 더해 아름다워졌다.
 ㉢ 올해는 작년보다 더한 추위가 찾아왔다.
 ㉣ 병세가 점점 더해져 결국 세상을 떠났다.
 :

㉠
 (1)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다.
 [㉢]

㉡
 (1)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
 [㉠]
 (2)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
 (3)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

- | ㉠ | ㉡ | ㉢ | ㉣ |
|----------|--------|------|------|
| ① 더하다 ㉡ | 더하다 ㉡ | ㉢, ㉣ | ㉠ |
| ② 더하다 ㉡ | 더하다 ㉡ | ㉢ | ㉠ |
| ③ 더하다 ㉡ | 더하다 ㉡ | ㉢, ㉣ | ㉠, ㉡ |
| ④ 더하다1 ㉡ | 더하다2 ㉡ | ㉢ | ㉠, ㉡ |
| ⑤ 더하다1 ㉡ | 더하다2 ㉡ | ㉢, ㉣ | ㉠, ㉡ |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하였다.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을 발견하였다. 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선원 A가 널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처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쪽으로 헤엄쳐 왔다. 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그 널판을 붙잡게 되었다. 두 사람이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널판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선원 A는 둘 다 빠져 죽을까 걱정하여 선원 B를 널판에서 밀어내었다. 선원 B는 결국 물에 빠져 죽었고 선원 A는 구조되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도 따져 볼 만하다.

범죄는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하며, (3)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중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

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킨 일을 가지고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킨 위법한 행위라 하지 않는 것이다. 긴급피난은 꼭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앞의 사례에서 선원 A와 선원 B가 동시에 널판을 잡은 행위는 저마다의 생명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 상황은 선원 A의 입장에서 급박한 위난이었고, 선원 A의 이어진 행위는 위난을 피하는 데 절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선원 A의 행위에 대해 ㉠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나, ㉡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우선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할 때 위난에 빠진 선원 B의 행위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긴급피난이 ㉠ 성립하려면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훨씬 커야 하는데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선원 A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는 유책한 행위, 곧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책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위법성은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이다. 형법상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기대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는 윤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인 비난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재구성한 사례에서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송고한 선행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윤리적인 비판은 몰라도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6.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② 침해한 법익이 보호한 법익보다 크면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 ④ 형법상 책임과 관련해서 윤리적인 비판과 법적인 비난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는 윤리적 허용 여부와 형법상 처벌 여부를 따져 볼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은 선원 A의 행위가 현재 자기에게 닥친 침해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③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은 선원 A의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그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져야 결정될 것이라고 볼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선원 A의 행위가 현재 직면한 위난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

18. ㉢의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

- ① 선원 A나 선원 B의 행위는 모두 위난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선원 B가 만약 선원 A를 밀어 빠져 죽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범죄가 된다.
- ③ 선원 A와 선원 B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선원 B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 ⑤ 선원 A가 선원 B를 살리는 선택을 하였다더라도 그것을 윤리적으로 드높은 덕행이라 할 수 없다.

19.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과잉방위는 일반사회통념상 정당방위라고 인정되는 수준, 즉 상당성을 넘은 방위행위를 말한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로서의 위법성을 감쇄하는 것은 아니나, 정황에 따라 그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과잉피난은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은 행위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는 과잉피난의 위법성이 감쇄되지만, 그 행위의 상당성의 정도가 지나치는 경우에는 그 위법 또는 책임이 감쇄되지 않는다.

- ① 과잉방위와 과잉피난은 모두 행위의 책임을 지닌다.
- ② 과잉방위와 과잉피난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과는 다르게 위법성을 지닌다.
- ③ 과잉방위와 과잉피난의 정의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정도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 ④ 정당방위, 긴급피난, 과잉방위, 과잉피난 모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과잉방위와 과잉피난과는 달리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다.

20.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타나려면 ② 이루어지려면 ③ 실현되려면
- ④ 만들어지려면 ⑤ 세워지려면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 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데서 오시는 길입니까?”

“흙,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려면 소위 중간 소작인 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종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A]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어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밑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 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던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중략)

㉔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림기도 하여서 홀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뭔가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꼭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않더마.”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던 말씀이요?”

“흠,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지요?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꼭 구경했는지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뚝뚝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혈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지요?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지요?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리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뚫뚫히 본 듯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열네댓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이십 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덕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궤녀는 이십 원 몸값을 십 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육십 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 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궤녀도 자기와 같이 십 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

아오니까 거기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해를 울어 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십 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 두었던 일본 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된 것이었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지요? 그 술 많은 머리가 홀렁 다 벗어졌더마. 눈은 꼭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더마.”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㉕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돌이서 정종만 한 열 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마.”

하고 가슴을 찌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었음이다.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지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 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리었다.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 현진건, 「고향(故郷)」 —

(나)

S# 34. 동굴 안

뚝, 떨어지는 물방울. 현, 지친 듯 암벽에 기대 눈을 감는다. 자꾸만 흘러내리는 다리의 피. 점점 쇠잔해 가는 현의 얼굴. 바닥에 흥건한 피. 점차로 높아 가는 가쁜 숨결.

문득 긴장하는 현. 계곡 쪽에 두런두런 말소리. 휘익 날카로워지는 눈동자. 총을 재빨리 거머쥐고 겨냥한다. 가빠 오는 숨결. 저 아래 관목의 숲으로부터 나무꾼 두 사람이 오솔길을 따라서 계곡을 내려간다. 그들을 겨냥하는 나선의 단도. 땀 흐르는 현. 날카로운 안광. 우쭐우쭐 나뭇짐이 계곡 아래 내려다보이질 않는다. 계속 겨냥하고 있는 현. 저 아래 벌판으로 나무꾼들 간다. 스산한 바람 소리. 안도의 숨결 내쉬는 현.

강줄기 저편 소달구지가 지나간다. 현, 다시 암벽에 기대 눈을 감는다. 포켓을 뒤져 담배 한 개비 문다. 성냥을 켜다. 그러나 습기에 젖어 켜지지 않는 성냥. 다시 시도한다. 움찔 다리가 쑥셔 온다. 역시 안 켜진다. 열 개비쯤 역시 안 켜진다. 포기하고 마는 현. 담배 구겨 던지고 암벽에 눈을 감는다.

순간, “까악—.” / 까마귀 소리의 과장음. 놀란 눈 획 돌아보는 현. 까마귀 두 마리 저 앞 소나무에 앉는다.

“까악—.” / “까악—.” / 바라보는 현.

“까악—.” / “까악—.” / 까마귀 소리 굴 안을 메아리치며, 이상한 환청으로 들리는 그 소리.

“까악—.” / “까악—.” / “빠가—.” / “빠가—.”

S# 35. 중학교 교실

“빠가-.” / 학생 A의 따귀를 철썩철썩 때리는 일본인 선생.

선생: 이것이 불온한 책자인 줄 몰랐단 말인가?

곳곳이 얻어맞는 학생 A. 멀거리 바라보는 학생들. 그중에 현과 연호.

선생: 누구랑 독서회를 가졌는가.

불이 나도록 또 뺨을 때린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현의 얼굴.

S# 36. 교정

현이 가방 들고 나온다. 문득 멈춘다. 학교 직원실 건물 쪽에서 한 때의 학생들. 창백한 얼굴, 도수 높은 근시 안경의 M 선생을 고등계 형사 두 명이 연행해 가고 있다. 학생들이 수군거린다.

E: 어떻게 된 거야? / - 모종의 독서회를 열었고, 학생들에게 독립 사상을 주입시킨 혐의래.

태연히 냉소마저 머금고 지나치는 M 선생, 현과도 시선이 마주친다. 이상하게 흠칫 뒤로 물러서는 현.

M 선생: 공부를 잘해라.

지나치며 한마디 한다. 착잡한 시선으로 뒷모습 바라보는 현. 다시 교문을 향해 걸어 나가는데.

“어이, 현아.” / 저쪽 나무 그늘 아래 또 한 때 웅성대던 학생들 중에 연호가 부른다.

현: 연호, 너 안 갈래?

연호: 잠깐 와 봐.

그쪽으로 가는 현. 그쪽의 학생들 얼굴이 왠지 긴장해 있다. 그들 현을 자세히 본다. 순간 굳어지는 현.

민영: (나서며) 현은 우리의 뜻을 알 거다.

현: (어리둥절) 무슨 뜻?

민영: 현의 아버지는 삼일 혁명 당시 훌륭한 죽음을 하셨으니까.....

현: (흠칫. 무슨 뜻인지 안다.).....

민영: 아침에도 오 학년 학생 둘이 끌려갔어..... 또 끌려갈 거야..... 하지만 우리는 중단할 수 없어.

현: (주저).....

민영: 잡혀간 철웅이 아버님이 주재소로 끌려가 매를 맞고 돌아와서 돌아가셨대..... 너의 아버진 우리의 우상이야. 너도 우리와 뜻을 같이해 주어.

현: (입술이 탄다.).....

연호: (두둔하며) 현은 말 안 해도 우리의 뜻을 알아.

현: (당황) 아니 그보다.....

민영: 그보다 뭐야?

현: 우리가 비밀 운동이나 조직한다고 무어가 달라질까?

민영: 뭐?

현: 글썸..... 우리들 힘이나 잡혀간 M 선생님의 힘으로 뭐가 거대한 것이 달라질까 말아야.....

민영: (발끈) 그렇다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수동적이어야만 하니.

현: (우물쭈물) 글썸..... 난 당장 해야 할 숙제나 시험만 해도 과중해서..... / 일순 굳어지는 야릇한 공기.

현: 미안해..... / 돌아서 간다.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

민영: 비겁한 자식.

움짚 멈춰 서는 현.

연호: (변명하며) 아냐. 현이는 흠어머니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 없어. / 현의 발아래 긴 그림자. 다시 걸음을 옮기며 흠칫 하늘을 보는 현.

S# 37. 하늘

더욱 크고 검은색이 도는 그림자의 환영. 그것은 거북의 껍질

같은, 아니 소라의 껍데기 같은 두꺼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며, 자신을 압도할 것 같은 기분 나쁜 느낌.

S# 38. 교정

모멸감을 삼키듯 침을 꿀꺽 삼키는 현.

S# 39. 하늘

없어지는 그림자의 환영.

S# 40. 교정

책가방 들고 멀리 걸어가는 현의 뒷모습.

-선우휘 원작. 이은성/윤삼육 각색, 「툭툭」-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그에 공감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 of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22. (가)의 노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가 겪고 있는 문제를 중재한다.
- ② 현실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한다.
- ③ 그와 내가 함께한 추억을 회상하게 한다.
- ④ 현실의 변화를 기대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 ⑤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23.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부각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상상적 공간을 묘사하여 진행되는 사건의 허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사건의 요약적 진술을 통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갈등 상황을 세부적으로 서술하여 부정적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인물의 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사건의 반전을 암시하고 있다.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역둔토를 파먹고’와 (나)에서 독서회를 가진 일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② (가)의 ‘죽겠다’, ‘못 살겠다’는 가난한 주인의 상황을, (나)에서 총을 재빨리 거머쥐고 겨냥하는 현의 모습에는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③ (가)의 ‘무덤을 파서 해골을 혈어 젖혀 놓은 것’과 (나)에서 학생 둘이 끌려갔다는 민영의 말에는 참혹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를 통해 인물 간의 동질성을, (나)는 민영의 제안에 미안하다는 현의 말을 통해 인물 간의 이질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⑤ (가)에서 내가 탄식하는 것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공감의 태도를 느낄 수 있으며, (나)에서 공부를 잘하라고 말하는 M 선생의 모습에서 의연한 태도를 느낄 수 있다.

25. (나)의 ‘#34~#35’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 34: ‘물방울’ 소리와 ‘스산한 바람 소리’를 통해 인물이 긴장감을 느끼는 이유를 제시한다.
- ② S# 34: 부상을 입은 신체를 부각하여 인물이 쫓기는 처지에 놓이게 된 원인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 ③ S# 34: ‘까마귀 소리’를 매개로 하여 현재에서 과거로 장면이 전환되도록 한다.
- ④ S# 35: S# 34에서 사용된 상징적 소재를 제시하여 앞 장면과의 공간적 유사성을 드러낸다.
- ⑤ S# 35: 주변 인물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굳은 의지가 드러난 주인공의 표정을 부각한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34~#40’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① ㉠에서는 이전과 같은 공간을 이전과 다른 시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가난한 현실을 암시하고 있고, #34와 #35에서는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 배경으로 인물의 회상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에서는 #37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하는군.
- ③ ㉢에서는 서로 다른 공간을 동일한 인물의 행동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35과 #36에서의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한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 것과 유사하군.
- ④ ㉣에서는 #36~#37과 마찬가지로, 같은 날에 다른 배경으로 한 상황들이 제시되어 있군.
- ⑤ ㉤은 분할된 시간들의 연결을 통해 상황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35~#40이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과 상황이 이어져 나타는 것과 구별되는군.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는 -273.16°C 이며 이를 절대 온도 OK라고 한다. 실제로 OK까지 물체의 온도를 낮출 수는 없지만 그에 근접한 온도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레이저 냉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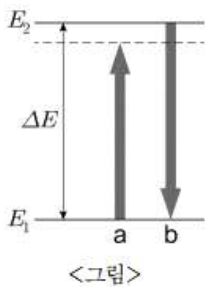
레이저 냉각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온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미시적으로 물질을 들여다보면 많은 수의 원자가 모인 집단에서 원자들은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며 다양한 속도로 운동한다. 이때 절대 온도는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어떤 원자의 집단에서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를 감소시키면 그 원자 집단의 온도가 내려간다. 레이저 냉각을 사용하면 상온(약 300K)에서 대략 200m/s의 평균 운동 속도를 ① 갖는 기체 상태의 루비듐 원자의 평균 운동 속도를 원래의 약 1/0000까지 낮출 수 있다.

그렇다면 레이저를 이용하여 어떻게 원자의 운동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 날아오는 농구공에 정면으로 야구공을 던져서 부딪히게 하면 농구공의 속도가 느려진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움직이는 원자에 레이저 빛을 쏘아 충돌시키면 원자의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때 속도와 질량의 곱에 해당하는 운동량도 작아진다. 빛은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광자라는 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운동량을 갖는다. 광자는 빛의 파장에 반비례하는 운동량을 가지며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다. 또한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레이저 빛은 햇빛과 같은 일반적인 빛과 달리 일정한 진동수의 광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레이저 빛을 구성하는 광자가 원자에 흡수될 때 광자의 에너지만큼 원자의 내부 에너지가 커지면서 광자의 운동량이 원자에 전달된다.

실제로 상온에서 200m/s의 속도로 다가오는 루비듐 원자에 레이저 빛을 쏘아 여러 개의 광자를 연이어 루비듐 원자에 충돌시키면 원자를 거의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문제는 원자가 정지한 순간 레이저를 끄지 않으면 원자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원자를 하나하나 따로 관측할 수 없고 각 원자의 운동 속도에 맞추어 각 원자와 충돌하는 광자의 운동량을 따로 제어할 수도 없으므로 실제 레이저를 이용해 원자의 온도를 내리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이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도플러 효과와 원자가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이렌과 관측자가 가까워질 때에는 사이렌 소리가 원래의 소리보다 더 높은 음으로 들리고, 사이렌과 관측자가 멀어질 때에는 더 낮은 음으로 들린다. 이처럼 빛이나 소리와 같은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동원과 관측자가 멀어질 때는 파동의 진동수가 더 작게 감지되고, 파동원과 관측자가 가까워질 때는 파동의 진동수가 더 크게 감지되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 이때 원래의 진동수와 감지되는 진동수의 차이는 파동원과 관측자가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에 비례한다. 이것을 레이저와 원자에 적용하면 레이저 광원은 파동원이고 원자는 관측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레이저 광원에 다가가는 원자에게 레이저 빛의 진동수는 원래의 진동수보다 더 높게 감지되고, 레이저 광원에서 멀어지는 원자에게 레이저 빛의 진동수는 더 낮게 감지된다.

한편 정지해 있는 특정한 원자는 모든 진동수의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한 진동수, 즉 공명 진동수의 빛만을 흡수한다. 이것은 원자가 광자를 흡수할 때 원자 내부의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 E_1 에서 그보다 더 높은 특정 에너지 준위 E_2 로 옮겨가는 것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는 두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값의 차이 ΔE 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레이저 냉각을 수행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어떤 원자의 집단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레이저 빛을 원자에 쏘되 그 진동수를 원자의 공명 진동수보다 작게 한다. 원자가 한쪽 레이저 빛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 원자에서 감지되는 레이저 빛의 진동수가 커지는데, 그 값이 자신의 공명 진동수에 해당하는 원자는 레이저 빛을 흡수하게 된다. 이때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는 ΔE 보다 작지만(<그림>의 a), 원자는 도플러 효과 때문에 공명 진동수를 갖는 광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낮은 준위 E_1 에 있던 전자를 허용된 준위 E_2 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불안정해진 원자는 잠시 후에 ΔE 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면서 전자를 E_2 에서 E_1 로 내려놓는다(<그림>의 b). 이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원자

가 광자를 흡수할 때에는 일정한 방향에서 오는 광자와 부딪쳐 원자의 운동 속도가 계속 줄어들지만, 원자가 광자를 내놓을 때에는 임의의 방향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결국 광자의 방출은 원자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자에서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원자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원자의 평균 운동 속도가 줄고 그에 따라 원자 집단 전체의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에너지 준위: 양자역학계(원자, 분자, 원자핵 등)의 정상상태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값, 또는 그러한 에너지를 지닌 상태 그 자체이다.

27.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를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절대 온도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예측과 같음.....①
◦ 실제로 OK까지 물체의 온도를 낮출 수는 없는 이유가 나올 것이다.	예측과 다름.....②
◦ 레이저 냉각의 발전 과정이 나올 것이다.	예측과 같음.....③
◦ 레이저 냉각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이론이 나올 것이다.	질문의 답이 제시됨.....④
◦ 레이저 냉각을 대체할 다른 방법도 나올 것이다.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⑤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빛의 진동수가 커지면 광자의 운동량도 커진다.
- ②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가 높아지면 절대 온도도 높아진다.
- ③ 공명 진동수의 빛만을 흡수하는 원자의 속도는 0보다 클 수 없다.
- ④ 빛이 운동량을 갖는 이유는 파동과 원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 ⑤ 원자 집단의 온도를 올리려면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를 증가시켜야 된다.

29. 밑글에 나타난 <레이저 냉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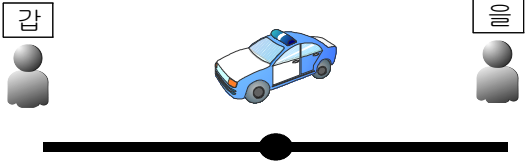
- ① 레이저 냉각으로 절대 온도 OK을 얻을 수 있다.
- ② 레이저 냉각은 원자와 레이저 빛을 충돌시켜 원자를 냉각시키는 것이다.
- ③ 이동하는 루비듐 원자에 도플러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원자의 온도를 내릴 수 있다.
- ④ 루비듐 원자가 정지해 있더라도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레이저 냉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 ⑤ 개별 원자의 운동 상태를 파악하여 각각의 원자마다 적절한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쏠 수 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E_2 에서 E_1 로 전자가 이동할 때 광자가 방출된다.
- ② 원자가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ΔE 로 일정하다.
- ③ 원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광자를 방출한다면 원자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 ④ 다가오는 원자에 공명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쏘면 원자 내부의 전자가 E_1 에서 E_2 로 이동한다.
- ⑤ 원자 집단 전체의 온도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원자에서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31.[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과 을의 직선 거리 사이 정중앙에 사이렌 소리를 내는 경찰차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찰차는 항상 동일한 파동의 사이렌 소리를 내는 피동원에 해당하며 갑과 을은 사이렌 소리를 듣는 관측자에 해당한다. 이때 갑 혹은 을이 피동원과의 거리에 따라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 ① 멈춰있는 경찰차를 향해 갑과 을이 이동하는 속도에 상관없이 갑과 을은 모두 도플러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 ② 멈춰있는 을을 향해 갑과 경찰차가 동일한 속도로 계속 이동한다면 갑과 을이 각각 감지하는 진동수의 최대치는 결국 같아지게 된다.
- ③ 멈춰있는 경찰차를 향해 갑과 을이 각각 10km, 30km로 이동한다면 을이 경찰차를 만나기 직전 상황에서 을이 감지하는 진동수는 갑이 감지하는 진동수보다 크다.
- ④ 멈춰있는 갑을 향해 경찰차가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만 갑과 경찰차가 동일한 속도로 을을 향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한다면 도플러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 ⑤ 경찰차와 을이 서로 10km로 마주 향해 이동하는 상황에서 원래의 진동수와 감지되는 진동수의 차이는 갑이 경찰차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20km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원래의 진동수와 감지되는 진동수의 차이랑 다르다.

32.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다른 단체와 교류를 가지다.
- ②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다
- ③ 서점에서 책을 잔뜩 사 가지고 왔다.
- ④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너무 오래 끌지 마라.
- ⑤ 짧은 시간에 권력을 가진 그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 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 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리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 -

(나)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나무를 하다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리다 하루해가 저문다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가던 웅이 박힌 나무다
그건 상처다 상처받은 나무
이승의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의 무거운 웅이들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흰 재, 저 흰 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

- 박남준, 「흰 부추꽃으로」 -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부정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 활유적 표현을 통해 삶의 힘겨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B] : 시각의 촉각화를 통해 삶의 힘겨움을 위로하고자 한다.
- ③ [C] :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둬서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 ④ [D] :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 추상적 대상을 형상화하면서 소멸을 통한 생성을 표상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존재의 문제를 일관되게 탐구해 온 김춘수는 후기 시에 이르러, 부재가 오히려 존재의 자리 혹은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부재의 존재론, 즉 역설의 시학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공기가 없어지면 공기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듯이, 그는 대상의 부재가 오히려 그 대상의 존재감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존재 탐구에 대한 사유는 시간 및 공간의 의식과도 연관된다. 존재란 ‘지금’, ‘여기’, ‘있다’는 의식과 긴밀하게 닿아 있기 때문이다. 김춘수는 이 시를 통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부재가 증명하는 존재의 절실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① ‘조금 전’은 아내가 존재했던 과거의 시간을 의미하며, ‘지금’은 아내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을 통해 오히려 아내의 존재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현재의 시간을 의미하는군.
- ② ‘거기’는 과거에 아내가 존재했던 공간이지만 현재는 아내의 부재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부재로 인해 드러나는 아내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기능을 하는군.
- ③ ‘어디로 갔나’는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와 함께 죽음으로 인한 아내의 부재 상황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군.
- ④ ‘밖’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아니한 아내로 인한 절망감이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확신으로 바뀌는 공간이군.
- ⑤ ‘이번’은 아내의 부재를 절실히 깨닫는 순간으로, ‘한 치 앞을 못 보게’ 퍼붓는 ‘빗발’에 연결되면서 존재의 절실함과 부재에서 오는 슬픔을 느끼는 시간이군.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편, 시백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내외간에
[A] 함께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부인을 보면 차마 얼굴을 대할
마음이 없어져서 부부간에 정이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러자 박씨가 초당의 이름을 피화당(避禍堂)이라고 써 붙이고
몸종 계화를 시켜서 뒤뜰 전후좌우에 갖가지 색의 나무를 심는데,
오색 흙을 가져다가 동쪽에는 푸른 기운을 따라서 푸른 흙을 나
무뿌리에 북돋우고, 서쪽에는 흰 기운을 따라서 흰 흙으로 북돋우
고, 남쪽에는 붉은 기운을 따라서 붉은 흙으로 북돋우고, 북쪽에는
검은 기운을 따라서 검은흙으로 북돋우고, 중앙에는 노란 기운
을 따라서 노란 흙을 북돋우고 때를 맞추어 물을 정성으로 주니,
그 나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서 모양이 엄숙하고 신기한 일이
있어서 오색 구름이 자욱하고 나뭇가지에는 용이 서린 듯 잎은
범이 호령하는 듯 각색의 새와 무수한 뱀들이 변화가 끝이 없으
니, 그 신기한 재주는 귀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무식한 사
람이야 누가 알아보겠는가!

이때 공이 계화를 불러 말하기를,

“요사이 부인이 무엇을 하며 지내더냐?”

계화가 여쭙기를,

“후원에 갖가지 색깔의 나무를 심으시고 때를 맞추어 소녀로
하여금 물을 주어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공이 듣고 계화를 따라 후원 좌우를 살펴보니 갖가지 색깔의
나무가 사면에 무성한데, 그 모양이 엄숙하여서 바로 보기 어려웠
다. 그래서 계화를 붙들고 겨우 정신을 차려 보니 나무는 용과 호
랑이로 변하여 바람과 비를 일으키려 하고 가지는 무수한 새와
뱀이 머리와 꼬리를 서로 맞물린 듯하여 변화가 무궁무진하므로,
공이 깜짝 놀라며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신선이로다. 여자로서 이 같은 영웅의
[B] 큰 지략을 품었으니 신과 같이 밝은 재주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하시고 박씨에게 묻기를,

“저 나무를 무슨 까닭으로 심었으며, 이 집의 이름을 피화당이
라고 하였는데, 잘 모르겠구나. 무슨 까닭이냐?”

박씨가 여쭙기를,

“길한 것과 흉한 것과 재앙과 복은 사람에게 늘 있는 일이지만,
다음에 급한 일이 있어도 이 나무로 방비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래서 심었습니다.”

공이 그 말을 듣고 까닭을 물으니 박씨가 여쭙기를,

“또한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 어떻게 하늘의 조
화를 누설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자연히 알게 되실 것이오니
남에게 말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공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너는 정말로 나와 같은 사람의 며느리가 되기에 아깝구나. 나
의 팔자가 기박하여 도리를 모르는 자식이 아비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지 않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
고 있으니, 내 생전에 너희 부부가 화락하게 지내는 것을 보지 못
할 것이다.”

하며 한탄해 마지않았다. 박씨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위로하여

말하기를,

“저의 용모가 용렬하여 부부간에 화락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오니 이것은 모두 저의 죄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
까마는, 다만 제가 원하는 바는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부
모님께 영화를 보시게 하고 출세하여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C] 드날리며 나라를 충성으로 도와서, 폭군이던 하나라 걸왕에
게 올바른 말을 하였다든 용방이나 은나라 충신 비간이 오
랜 세월 길이 이름을 날림을 본받은 후, 다른 집안에서 아
내를 맞아 자손을 보고 아무 탈 없이 오래오래 살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는데 공이 그 말을 들으니 그 넓은 마음에 못내 감탄하며 더
욱 불쌍하게 여기며 눈물을 흘리니, 박씨가 미안한 마음에 위로하
여 말하기를,

“아버님께서서는 잠깐만이라도 마음을 놓으십시오. 아무 때라도
설마 화목하게 지낼 때가 없겠습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중략)

한편, 하루는 박씨가 목욕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
어 껌질을 바꾸는 술법을 부려서 변화하니 허물이 벗어졌
다. 날이 밝자 계화를 불러 들어오라 하니, 계화가 대답하고
들어가 느닷없이 예전에 없던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 방 안
[D] 에 앉아 있는데, 계화가 눈을 씻고 자세히 보니 아리따운
얼굴과 기이한 태도는 달나라 궁궐에 숨어 산다는 항아가
아니면 중국 무산에 살았다는 선녀라도 따르지 못할 것 같
았다. 한 번 보고 정신이 아득하여 숨도 못 쉬고 멀찌 감치
않았는데, 박씨가 꽃과 달 같은 얼굴을 들고 붉은 입술을
반쯤 열어 계화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껌질을 벗었으니 밖에 나가도 야단스럽게 다른 사
람에게 떠벌리지 말고, 대감께 아뢰어 ‘옥으로 된 상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여라.”

계화가 명을 받들어 급히 바깥채로 나오며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하므로 공이 반가워하며 묻기를,

“너는 무슨 좋은 일을 보았길래 그렇게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하냐?”

계화가 아뢰기를,

“피화당에 신기한 일이 있으니 급히 들어가 보십시오.”

공이 이상하게 여겨 계화를 따라 급히 들어가 방문을 열어 보
니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찌르며 한 소녀가 방안에 앉아 있는데,
아리따고 화려하고 인품이 정잡고 정조가 곧아 보이는 것이 이른
바 요조숙녀이고, 정말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 여자가
부끄러움을 머금고 일어나 맞는데 공이 또한 마음 속으로 이상함
을 이기지 못하여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고 있으니, 계화
가 상공께 아뢰기를,

“부인이 어젯밤에 허물을 벗으시고, 대감께 청하여 옥함을 구하
여 쓸 곳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이 그제야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오늘 절대가인이 되었느냐? 천고에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일이로구나.”

박씨가 고개를 숙이고 아뢰기를,
 “제가 이제야 액운이 다 끝났기에 누추한 허물을 어젯밤에 벗
 게 되었으니, 옥함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그 허물을 넣어 두겠습
 니다.”

공이 그 신기함을 감탄하고 즉시 나와 옥을 다루는 기술자를
 불러 옥함을 만들어 며칠 만에 들여보내고 아들 시백을 불러 말
 하기를,

“얼른 들어가 네 아내를 보아라.”

— 작자미상, 박씨전(朴氏傳) —

* 피화당 - 화(禍)를 피하는 집.

3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격의 없는 대화로 인물들 간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 ③ 주변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고 있
 다.
- ⑤ 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표리부동함을 드러
 내고 있다.

3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한 외모 때문에 ‘박씨’의 진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시백’은 외모를 기준으로 여성을 대하는 자이다.
- ② ‘박씨’와 ‘시백’이 화락하지 못하고 있음을 애통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은 부부간의 화락과 화합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이다.
- ③ 다른 인물과의 소통을 비롯하여 ‘박씨’가 시키는 일을 충직하
 게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계화’는 ‘박씨’의 의중을 꿰뚫고 있
 는 자이다.
- ④ 추한 외모에 가려져 있던 ‘박씨’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보는 것
 으로 보아, ‘공’은 사람의 됴됨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소유하
 고 있는 자이다.
- ⑤ 신기한 행적을 보이면서도 ‘시백’이 입신양명하여 부모에 효도
 하고 국가에 공헌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아, ‘박씨’는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을 모두 지닌 자이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A]~[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박씨전」을 읽은 당시 독자층은 책의 여백과 말미에 특정
 대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다양한 필사기를 남겼다.
 ‘식자층’은 “㉠ 도리를 모르고 아버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시
 백이 험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라며 박
 씨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평민층’은 “㉢ 사람의
 됴됨이를 제대로 볼 줄 아는도다”라며 공의 안목을 평가하거
 나, “㉣ 남편을 위하는 마음을 어찌 측량하리오.”라며 박씨를
 칭찬하거나 “㉤ 드디어 허물이 벗겨졌구만”라는 필사기를 남
 겠다.

- ① [A]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시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군.
- ② [A]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박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
 타내고 있군.
- ③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공의 안목을 높게 보고 있
 군.
- ④ [C]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박씨의 희생을 높이 평가하
 는군.
- ⑤ [D]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아쉬움을 나타내는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빨갳게 잘 익은 사과를 보고서, ㉡“그래, 저 사과 맛
 있겠으니 가족과 함께 먹자.”라는 판단을 내린다. 이때 우리는 빨
 간 사과에 대한 감각 경험을 먼저 한다. 그러고 나서, ㉢“저기 빨
 간 사과가 있네.”라거나, ㉣“사과가 잘 익었으니 함께 먹으면 좋
 겠다.”라는 판단을 내린다. 이것은 보는 것이 믿는 것에 대한 선
 행 조건임을 의미한다. 감각 경험에 대한 판단과 추론은 고차원의
 인지과정이며 개념적 절차이고, 판단과 추론이 개입하기 이전의
 감각 경험은 비개념적 내용을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이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먼저 주어진 후에 판단과 추론이 이어지는 것을 정
 상적인 과정으로 보는 견해를 ‘비개념주의’라고 부른다.

비개념주의는 우리가 알아채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본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퇴근 후 아내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아내가 그날 노랗게 염색한 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아내의 핀잔을 들은 후 염색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서 어떻게 이를 모를 수 있었는지 의아해한다. 이렇게 현저한 변화를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을 변화맹(change blindness)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러한 특징적인 변화를 정말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긴 어렵다. 새로운 시각 경험이 주어졌으나 이 경험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판단과 추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설명이 자연스럽다. 우리는 아내의 노란 머리를 단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념주의’는 시각 경험과 판단·추론이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여기에는 배경 지식이나 판단 및 추론 같은 고차원의 인지적 요소들이 이미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념주의에서는 우리가 빨간 사과를 지각할 때 일종의 인지 작용으로서 해석이 일어난다고 여긴다. 식탁에 놓인 것을 ‘빨간 사과’로 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해석이다. 우리가 이 해석 작용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작용은 두뇌 곳곳에서 분산되어 일어나는데 이것도 일종의 판단이나 추론이라는 것이다.

개념주의는 베르나르도 벨로토가 그린 엘베 강 오른쪽 독에서 본 드레스덴을 통해서도 설명된다. 미술관에 걸려 있는 이 그림을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볼 때, 원경으로 그려진 다리 위에는 조금씩 다른 모습의 여러 사람들이 보인다. 우리는 작가가 아마도 확대경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을 매우 정교하게 그렸을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티끌같이 작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을까? 이 그림의 다리 위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사라지고, 물감 방울과 얼룩과 터치만이 드러난다. 어떻게 보면 작가는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직접 그렸다가보다는 단지 암시했을 뿐이지만, 우리의 두뇌는 사람과 비슷한 암시를 사람이라고 해석하여 경험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비유적으로 ‘채워 넣기’라고 부를 수 있다. 두뇌는 몇몇 단서를 가지고서 세부 사항을 채워 넣으며 이를 통해 다채로운 옷을 입고 여러 동작을 하면서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채워 넣기도 일종의 판단 작용이다. 우리의 시각 경험에 이미 판단 작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각 경험과 판단 작용은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 사람들을 지각할 때 이는 이미 해석을 전제한 다.

㉔개념주의는 변화맹을 어떻게 설명할까? 개념주의에 따르면 나의 감각 경험에 주어진 두 장면 사이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변화맹은 불합리하다. 비개념주의에서는 판단 및 추론에서 독립된 감각 경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판단이나 추론과 달리 나의 감각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특권을 가지므로 내가 나의 감각에 대해서 오류를 범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나의 감각의 변화를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변화를 알아볼 수 있을 때에야 감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념주의는 비개념주의가 아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본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셈이다.

반면에 비개념주의는 개념주의가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보았는데 보지 못했다고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3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변화맹은 대상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 ② 채워 넣기는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각 작용과 관련된다.
- ③ 보는 것과 배경 지식을 동일한 차원의 인지적 요소로 여긴다.
- ④ 빨갭게 잘 익은 사과를 본 행위에는 감각 경험이 개입되지 않는다.
- ⑤ 어디에서 보든 베르나르도 벨로토의 그림 속 다리 위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40.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주의자는 ㉑을 통해 인지 작용으로서 해석이 일어난다고 여긴다.
- ② 개념주의자는 ㉒, ㉔을 들어 시각 경험과 판단·추론이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고 본다.
- ③ 비개념주의자는 ㉒이후 ㉑이 이어지는 과정을 비정상적으로 볼 것이다.
- ④ ㉑~㉔을 통해 보는 것이 믿는 것에 대한 선행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비개념주의자에 의하면, ㉑은 ‘남편이 아내의 노란 염색을 본 것’에 ㉒은 ‘아내의 염색을 남편이 알아채 판단’에 대응될 수 있다.

41.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㉔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개념주의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면서 변화맹의 불합리성을 지적한다.
- ② ‘판단 및 추론에서 독립된 감각 경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변화맹의 불합리성을 지적한다.
- ③ ‘자신의 감각에 오류를 범할 수 없어야 한다’는 비개념주의에 맞서 변화맹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두 장면 사이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각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변화맹의 모순을 지적한다.
- ⑤ 변화맹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자신의 감각에 대해서는 자신이 특권을 가진다’는 이유를 든 이후 긍정적 판단으로 전환하여 설명하고 있다.

4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 개념적 일반화나 언어적 조작을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
나 동물도 감각 경험을 한다.
(나) 간판에 있는 오타를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가게를 제대
로 찾아왔다.

- ① 비개념주의는 (가)를 판단과 추론이 먼저 주어진 후에 비개념
적인 감각 경험이 이어지는 사례로 삼을 것이다.
- ② 비개념주의는 (가)와 (나)가 모두 감각 경험 이전에 비개념적
내용이 존재함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할 것이다.
- ③ 개념주의는 (나)에서 가게를 제대로 찾은 까닭을 채워 넣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 ④ 개념주의는 (가)를 감각 경험과 판단·추론이 별개의 절차가 아
니라는 것의 사례로 삼을 것이다.
- ⑤ 개념주의는 (가)와 (나)가 모두 아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본다는 것의 사례로 삼을 것이다.

올벼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심었거늘
한아한 식구(食口)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
죽은 국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살을 찌푸리고 코로 방귀 쩀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싸리, 피, 바랭이는 나기도 많이 났네.
환곡 비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냐고.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 장초(襄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지어미 배부르며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고.
베틀의 복도 쓸데없어 빈 벽에 걸려 있고
솔,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 녹이 다 슬었다.
세시 절기, 잔치, 제사는 무엇으로 지내며
원근의 친척, 오가는 손은 어떻게 접대할고.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뇨. --[A]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餞送)하여
길일을 잡아서 사방(四方)으로 가라 하니 [B]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우락을 너와 함께 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C]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꾸짖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世上)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너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D]
억지로 회피하여 잔피로 떨쳐내라.
하늘이 만든 이 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수어니 설위한들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 * 안표누공(顏瓢屢空): 안연의 표주박이 자주 빈.
- * 원헌간난(原憲艱難): 공자의 제자인 원헌이 몹시 가난했음을 이르는 말.
- * 장초 : 시경(詩經)에 나오는 복숭아 나무의 일종.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 고루 하려마는
어찌된 인생(人生)이 이토록 괴로운고
삼순구식(三旬九食)을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에 갓 한번 쓰거나 못 쓰거나
① 안표누공(顏瓢屢空)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간난(原憲艱難)인들 나같이 심했을까
봄날이 더디 흘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에 따비 얻고 서편 이웃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난을 의인화하여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식구들조차 먹여 살리기 힘든 하층민의 참혹한 생활상이 적나
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⑤ 화자는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 탄식하면서도 동시에 안
분지족을 지향하고 있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이질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에게 심경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는 화자에게 삶의 목표를 일깨워 준다.
- ③ ㉠은 화자에게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고, ㉡는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
- ④ ㉠은 화자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내면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먼 대상이고, ㉡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가까운 대상이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시대의 가사인 「탄궁가」에는 화자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궁귀(窮鬼)를 등장시켜 이를 쫓으려 한다. 이 장면에서 화자와 궁귀(窮鬼) 사이의 대화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가난을 대하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① [A]는 가난을 궁귀(窮鬼)로 의인화한 시작점이 되는군.
- ② [B]에서는 ‘술에 음식을 갖춘’ 것은 떠나보내려는 궁귀(窮鬼)에 대한 예의로 볼 수 있군.
- ③ [C]에서는 화자와 궁귀(窮鬼)의 주고받는 말을 통해 화자의 결을 떠나지 않으려는 궁귀(窮鬼)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④ [D]에서 화자는 궁귀(窮鬼)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⑤ [D]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가난에 대한 태도가 [A]~[B]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가난에 대한 태도와는 다르군.